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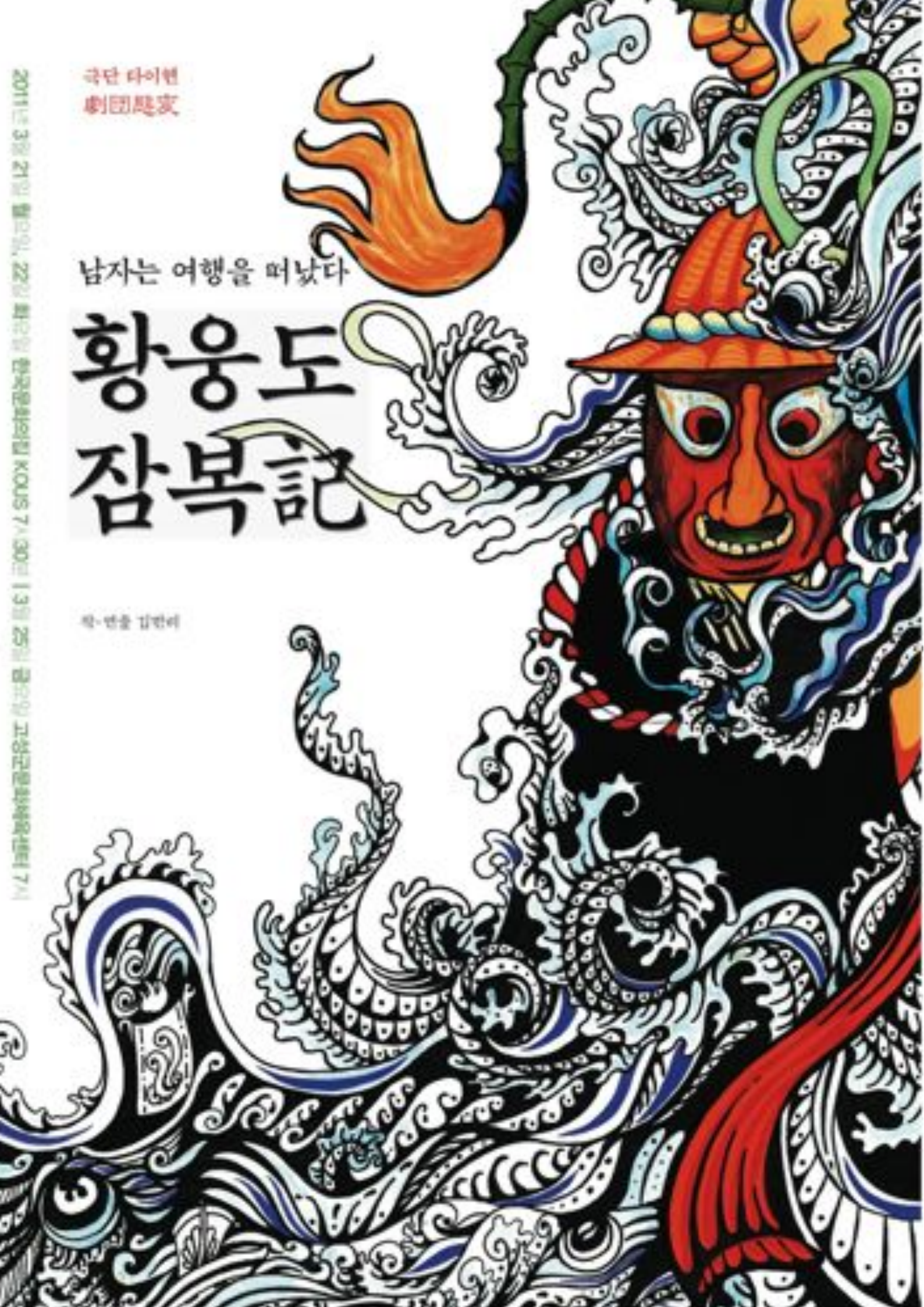
극단 타이현  
劇團題亥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 황웅도 잠복記

작·연출 김한이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22일 화요일, 23일 목요일, 24일 금요일,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27일 월요일, 28일 화요일,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 1월 1일 일요일, 2일 월요일, 3일 화요일, 4일 목요일,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 ■ 서울공연

일시 2011년 3월 21일(월) 19:30 / 3월 22일(화) 19:30

장소 한국문화의 집(KOUS)

## ■ 고성공연

일시 2011년 3월 25일(금) 19:00~


장소 경상남도 고성군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

[주최] 이마쥬/극단 타이헨(대표 김만리)


[기획협력] 진옥섭(축제의땅 대표)

이윤석(고성오광대 대표)

하자작업장학교

[기획지원] 2010년 일본문화청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일한문화교류기금조성사업

[후원] 국제교류기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극단 타이헨 한국공연실현을 위한 한국인모임·일본인모임

고성군

고성 남산라이온즈클럽

고성문화원

[고성공연주최] 고성신문사

[고성공연주관] (사)고성오광대 보존회

(사)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협회 고성군 지회, 고성군장애인후원회





## 출 연 자



### 코우즈키 요우헤이(上月陽平)

1977년 5월. 남자. 뇌성마비(CP).

1999년부터 참가. 극단 타이헨 외에도 카폰 연주자·보컬로 유닛 라이브에 출연. 자신이 기획한 아트 이벤트 프로듀서도 겸함.



### 김만리(金満里)

1953년 11월 출생. 여성. 소아마비.

극단 타이헨 창설자이자 예술감독.

출산휴가 중의 한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 연출. 세계적 부토 무용가 고(故)오노 카즈오로부터 사사, 솔로 작품의 감수를 받음.



### 코이즈미 유우스케(小泉ゆうすけ)

1971년 3월. 남자. 선천성양상지(兩上肢)결손.

1988년부터 참가. 이후, 거의 모든 작품에 출연.

거리나 갤러리를 불문, 서예가나 무용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동작업을 해오고 있다.



### 후쿠모리 케이노스케(福森慶之助)

1937년 10월. 남성. 척주카리에스.

1983년부터 참가. 이후 거의 모든 작품에 출연. 외부 극단 게스트로 출연, 전위무용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무대에서 표현활동 전개. 플루트 연주자이기도 함. 극단 타이헨에서 발행하는 정보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 쿠스모토 테츠로우(楠本哲郎)

1957년 5월. 남성. 교통사고에 의한 우상지신경마비

2008년부터 참가. 신체표현 외에도 손으로 베이스, 신디사이즈를 연주. 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며 피어카운셀링 업무도 맡고 있다.



### 카야노 카즈오(茅野和郎)

1941년 9월. 남성. 소아마비

2009년부터 참가. 극단 타이헨 외에도, 지금까지 작사·작곡 등 음악제작활동을 해왔다.

## 한국보조출연자



방상연



김탄진



정승배



장애경



장진석



김동림



박창우



정승락

## 음악



### 조박

1956년 오사카 출생. '나니와를 노래하는 거인 박이'라는 별칭을 가진 싱어송 라이터. 대학 등에서 20년 간 강의를 한 후 프로로 데뷔. 라이브나 콘서트는 물론, 영화를 노래와 이야기로 표현하는 1인극 '노래하는 키네마'를 전국에서 공연. 작품으로는 <서편제>, <모래 그릇>, <청춘의 문>, <오줌의 강>, <박치기> 등. CD앨범 『백 년만의 약속』(제11집), 저서 『나는 재일관서인』(해방출판사), 『꿈·장송』(미즈노와출판) 등. 2006년도 'TBS라디오 에로구스케 라이브' 예능대상수상. 공식사이트 <http://fanto.org>

# 장애인의 신체를 통해

## 전위와 고전을 수용하다

연출가 김만리 인터뷰

이번 작품을 '극단 타이헌 28년의 표현의 집대성'이라고 말한다. 어떤 의미인가?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말해달라.

극단 타이헌의 대표적 형식은 옴니버스다. 하나 하나의 작품을 연결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 그리고 댄스형식의 작품이 많았다. 다음은 설명이 없는 추상적 표현이다. 신체표현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런 감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토리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시각적 이미지, 내 안에 있는 영감이나 이미지를 무대 위에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주를 이뤘다. (중략) 이번엔 한국의 고전예능을 통해 그 양 극단을 정면에서 다루고자 했다. 일종의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전문용어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러나 고전예능에서는 장애인의 신체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애인의 신체나 움직임이 굉장히 부정적,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서 정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중략) 이번에 그 '전위'와 내가 반발해왔던 '고전'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내가 만들어온 전위라는 것이 고전도 포함한다, 전위에 고전의 요소도 들어있다는 의미로 <황용도 잠복기>를 만들었다.



신체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신체워크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의학용어나 전문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개의 자세', '피부감각론'이 인상적이었다.

인간은 절대 지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지면, 즉 바닥이 중요하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누운 자세로 세상과 대면하는 중증장애인의 세계관은 언제나 지면에서 시작한다. 지면에서 보는 지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경우 서거나 달리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서서 뭔가 표현하거나 서서 뭔가를 던지거나. 댄스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면이라는 것은 마치 제1의 존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면을 생각하면 지구 전체가 연결된다. 그것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운 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무대에 대한 깊이랄까, 지평을 체험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워 생활하는 장애인 그 자체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고 싶다. 그것을 소외시키지 않고 살려나가는 신체표현을 하고 싶다.

선생님 작품에서 배우가 등장할 때 대부분 눕거나 앉은 자세로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

그렇다. 누워있는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권력적이 되어 버린다. 그들이 동시에 무대에 등장할 때, 서 있는 사람이 그들을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립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지면과 대치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략) 서있는 자세와 누운 자세의 배우가 공존하며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구성. 지면을 지키고 있는 누운 배우들의 신체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서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앉은 자세. 앉은 자세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인다. 지평 가운데의 덩어리로, 거기에 있는 바위처럼, 산처럼.

피부도 매우 중요한 감각이다. 내 신체훈련 기초에는 구르기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구르며 숨쉬기. 이와 함께 기(氣). 기를 사용하여 몸을 인식해간다는 것은 피부 세포 하나 하나가 모두 호흡함으로써 회복된다는 의미다. 구르기만으로 피부는 대지와 맞닿게 된다. 신체라는 건 대지와 함께 어디든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평 그 자체가 신체의 피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피부 세포 하나 하나에도 인격이 있다.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지배해서 하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 하나의 각성을 통해 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세포 하나 하나가 이어져 자신을 구성, 형성하고 있다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체를 컨트롤한다는 감각은 안 된다.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신체에 대한 서양적 사고방식이다. (중략) 자기 내부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하인이 된 기분일랑까, 그 소리에 따라가는 신체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표현이 탄생한다.

『한국연극』2월호 인터뷰 중









# 李龍振事件에 各團體行動干涉

단체의 책임자 모신 뜻코  
일체 단태 행동 못하도록  
固城警察의 神經過敏

(중의일보, 1928. 2.6)

固城(固城)의 단태(단체)가... (중의일보, 1928. 2.6)

## 이영진 사건을 간략 설명한다

간략의 설명과 뒤의 부가  
설명 간략 설명과 뒤의 부가  
간략 설명과 뒤의 부가

정당(正當)의 단태(단체)가... (중의일보, 1928. 2.6)

## 固城 蠶業傳習所 新築落成

固城(固城)의 단태(단체)가... (조선일보, 1928. 4.21)

(조선일보, 1928. 4.21)

## 간성 장영전습사 신축기공

간성(杆城)의 단태(단체)가... (간성신문, 1928. 4.21)



고성농민야학 졸업사진.  
뒷줄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황응도로 추정.  
(동아일보, 1929. 3. 23)



맨 뒷줄 왼쪽이 황응도.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이구(李玖)  
맨 앞줄 중앙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김홍주다.

# 황웅도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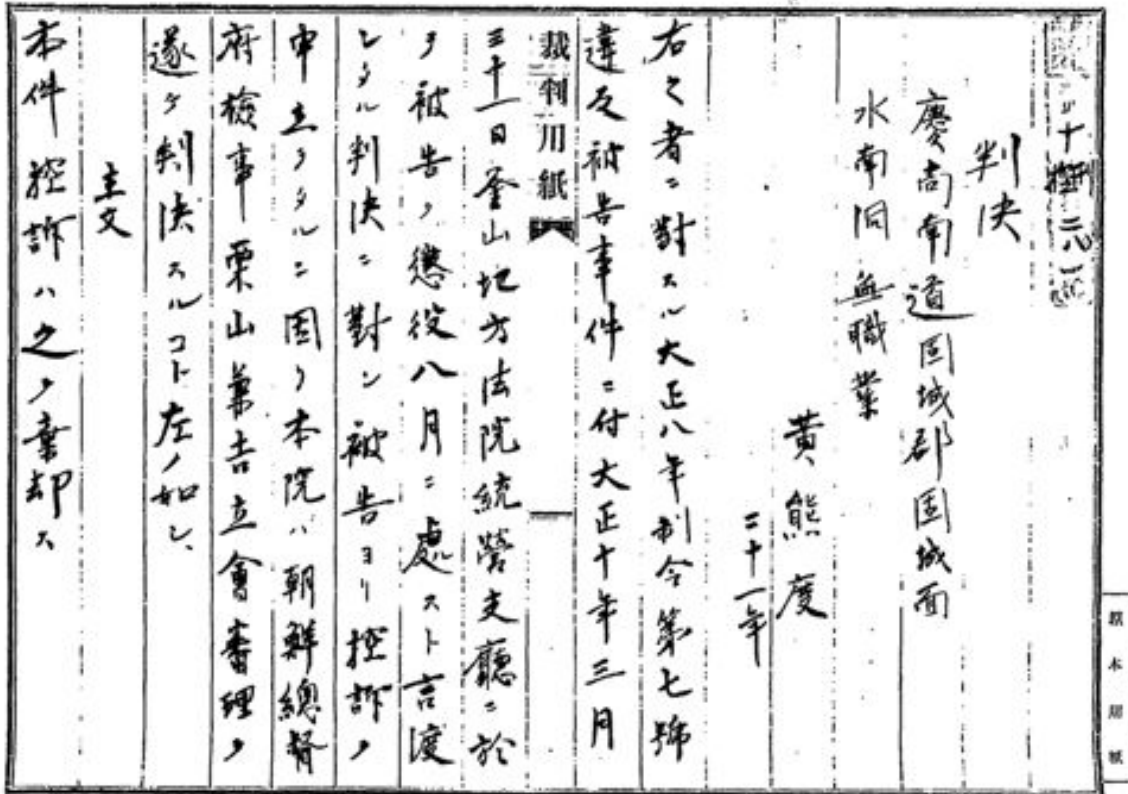
|      |  |
|------|--|
| 1895 | 청일전쟁(황웅도 탄생 6년 전)  |
| 1901 | 8월 6일, 황웅도, 경상남도 고성, 바다와 산에 면해있는 아름다운, 독립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고향에 태어나다.   |
| 1904 | 러일전쟁. 황웅도(3세)  |
| 1910 | 한국병합. 황웅도(9세)  |
| 1919 | 3월 1일. 서울과 몇몇 마을에서 독립선언 발표. 농촌으로까지 운동이 확대. 3월 17일, 고성에서도 최초의 독립운동.   |
| 1920 | 고성농민야학회를 열어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침. 회장 : 황웅도(19세)  |
| 1921 | 1월 '일심회' 결사집회. 고등경찰 관계 연표에 의하면, '1920년 12월, 일심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꾀함'이라고 적혀 있음. 3월, 경찰 명령으로 일심회 해산. 황웅도는 3월 31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 1926 | 10월 5일, 고성농민조합 창립. 소작권 교섭 등 농민들의 힘이 됨. 창립 당시 회원 25명, 1929년 현재 회원 286명. 조합장 황웅도(25세)  |
| 1927 | 신간회 고성지부 탄생. 황웅도, 간부로 활동.  |
| 1928 | 이용진 소년 15세(고성보통학교 학생), 일본인 소년 여러 명한테 폭행당해 한 달 후 사망. 장례식은 황웅도 등이 신간회 주최로 거행.<br>2월 26일, 잠업전습소 건설 자금 모집 관련 조선일보 기사. "고성잠업전습소 설치 계획 완성. 27년부터 착수해왔다"는 내용의 기사.<br>4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고성잠업전습소 신축 낙성. 잠업전습소는 변영, 이육고 잠업은 세계공황과 일본의 전쟁돌입, 금융위기에 휩쓸려 이끌어 갈 수 없게 됨. |
| 1929 |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최승희의 무용공연을 개최, 관중들 앞에서 황웅도 등 신간회 간부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 그날 밤, 간부들 체포.  |
| 1931 | 신간회 해산. 만주사변   |
| 1933 | 연말 경,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사건으로 황웅도 검거  |
| 1934 | 2월까지 경찰에서 취조를 받음. 황웅도는 기소되지 않고 석방. 황웅도는 김홍주와 함께 일본으로. 오사카 히가시 요도가와구 소젠지(崇禪寺) 역 근처에 정착. 김홍주를 간판으로 민속고전예능극단을 만들어 '삼천리좌' '황금좌'로 이름 붙여 일본 전국을 순회, 각지에서 제일 조선인들의 환영을 받음.  |
| 1945 | 8월 15일 일본정부, 포츠담선언 수락 발표. 일본패전. 조선해방.<br>교토신문 10월 29일 광고 '10월 28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조선악극단 특별공연' 경운좌(慶雲座) 40명 출연, 명기 김홍주, 김영무 특별공연. 주최 조선연예사(『근대가부키연표 교토편 별권:소화18년~22년 보유·색인』, 저자:국립극장근대가부키연표편집실)   |
| 1950 | 한국전쟁 발발  |
| 1951 | 그 이듬 해, 재일조선인 신분으로 사망.   |

.....  
\*제령 제7호

대정 8년 제령 제7호. 조선총독부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법률과 구별하기 위해 '제령'이라 칭했다. 대정 8년 제령 제7호란, 같은 해(1919년) 제정된 7번째 법령을 말하며,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라고도 불렀다. 삼일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또 법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4월 급히 제령 제7호를 만들어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자, 또는 방해하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하기로 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령으로 사용되었다. (주 :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 교수)



# 황응도 판결문



## 판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수남동 무직업  
황응도  
이십 일 년

위 자에 대한 타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타이쇼 10년 3월 3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피고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공소의 증립을 요구함에 따라 본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쿠리야마 가네요시 입회 심리를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주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주재 청년들에 의해 조직된 고성 일심회 회장으로 추천되어 동 회의 취지서 기초 위탁을 기회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던 조선독립운동의 사상을 발언하려 기획하여 타이쇼 9년 12월 28일 피고의 집거실 내 한문서당에서 “5년이나 계속된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평화공존의 소리는 세계를 진동시켜

동방의 천만 조선민족에게 신지식을 의식케 하였다. 우리 사회가 작년 3.1 독립운동 이래, 처음으로 눈을 뜨고 손을 움직여 이 수 백 년 동안 황폐하고 수퇴한, 꽃도 피우지 못했던 동산을 땀이나 가래로 갈았다. 우리 동산의 뜰 속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감추고, 풀뿌리가 뒤엉켜 작은 돌이 굴러가고 있다. 이 풀뿌리, 작은 돌을 청소해야 한다. 봄이 되면 봄산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꽃간엔 수확한 누렁진 곡식으로 넘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자.” 라고 적어 조선인들은 타이쇼 8년 독립운동으로 각성해온 것을 이후로도 또한 이를 계속 하여, 조선 내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독립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취지서를 작성하여 타이쇼 10년 1월 3일 고성 내 크리스트 교회당에서 집회를 거행, 일심회 회원 약 18명에 대해 위의 취지서를 낭독, 이를 통한 정치변혁 목적 하에 다수 공동으로 같은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집회를 방해할 것을 선동했던 것이다.

## 이상의 사실은

一, 김성복에 대한 고성경찰서 심문조서 중, 작년 12월 중 수남동 철성 한문서당에 간 황응도가 취지서를 설명하여 “나(김성복)한테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는 취지서 글 가운데 “봄이 되면 봄산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공간엔 수확한 누렁진 곡식으로 넘치는 것을..."의 내용 첫 줄은 한국의 독립운동 정세는 점점 강해지며, 둘째 줄은 일본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一, 〇상린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심회 취지서의 의미는, 우리 조선민족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으나, 오늘 눈을 떴듯이, 우리(조선의) 소년들은 봄 동산에 자라는 풀의 싹과 같이, 현대에 있어서 표면의 목적은 지육의 발달, 신체의 건전이라고 말해도, 이면은 다양한 곳에서 조선독립운동이 고조되어 가는 정세이므로, 우리도 일심동체가 되어 일심회를 조직해, 조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은 이름과 같이 퇴거시켜, 장래의 희망을 기대하라는 취지의 기재

一, 피고에 대한 동 고문조서 중, 취지서 가운데 "일본은 가을이 되어(기세가 약해져) 향후에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한다"고 쓴 것은 나쁜 짓이라 생각하여 취지서를 불태워버렸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재.

一, 천황공정에 있어서 피고인 나(황응도)는 타이쇼 9년 12월 중, 일심회에 입회하여 동 회의 회장이 되어 같은 달 18일 수남동 한문서당에서 일심회 취지서를 기초했음이 분명한 그 취지서는 증 제3호와 동일한 취지의 것이며, 타이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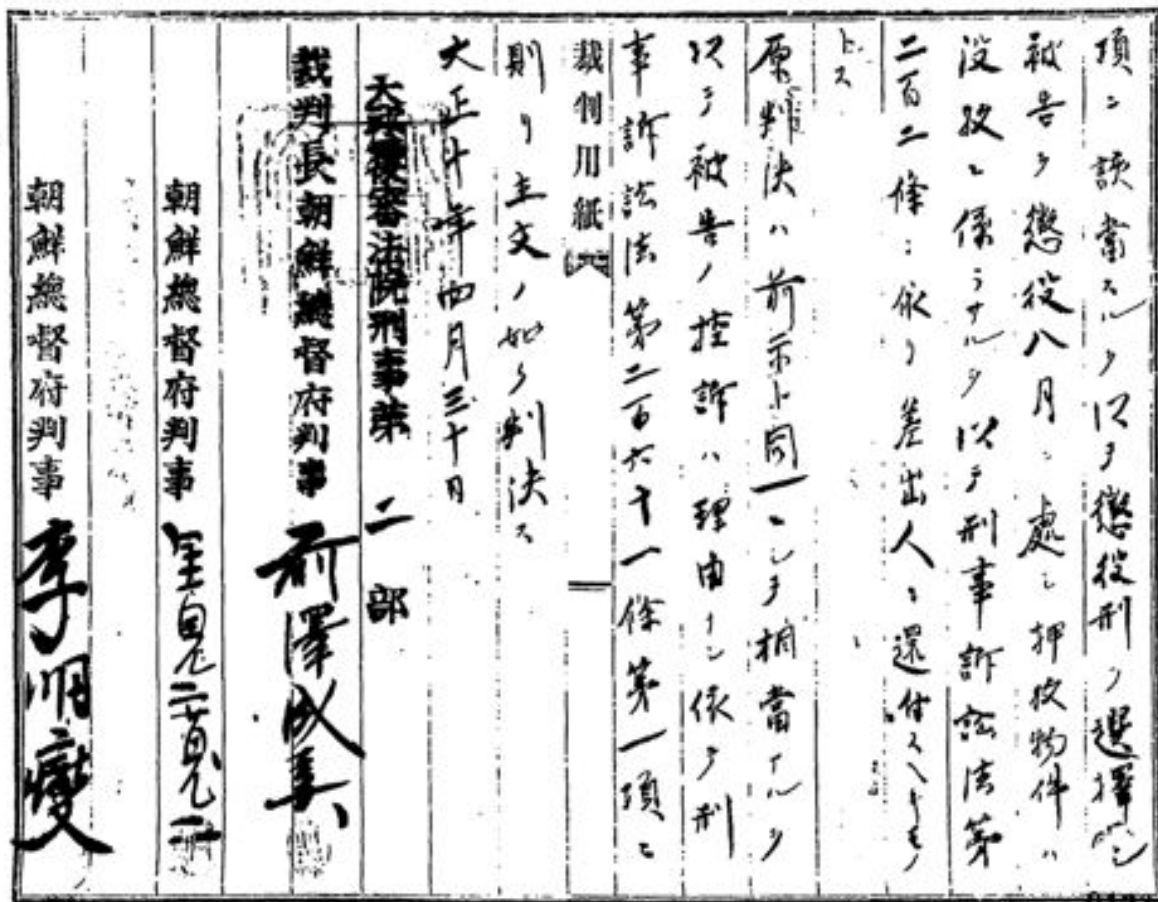
10년 1월 3일 고성 크리스트 교회당에서의 일심회 제14회 총회 석상에서 나는 위의 취지서를 낭독, 그 회의에 모인 회원은 18명이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

一, 판시에 적합한 기재가 있는 증 제3호 고성 일심회의 취지서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취보면, 피고의 행위는 타이쇼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함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를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한 물건은 몰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차출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한 원 판결은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고,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준거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이쇼 10년 4월 30일

대구 복심 법원 형사 제2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마에자와 나루미  
조선총독부 판사 사토미 칸지  
조선총독부 판사 이명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쿠스모토 카네고로



### 일심회취지서

(1920년12월29일,황응도기초.1921년1월3일 집회에서 낭독)  
(대구복심법원판결에서 현대어 번역)

5년이나 계속된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평화공존의 소리는 세계를 진동시켜, 동방의 조선민족 2천명에게 신지식을 의식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작년 3.1독립운동 이래, 처음으로 눈을 뜨고 손을 움직여 이 수 백 년 동안 황폐하고 수퇴한, 꽃도 피우지 못했던 동산을 팽이나 가래로 갈았다. 우리 동산의 뜰 속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감추고, 풀뿌리가 뒤엉켜 작은 돌이 굴러가고 있다. 이 풀뿌리, 작은 돌을 청소해야 한다. 봄이 되면 봄산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꽃간엔 수확한 누렁진 곡식으로 던지는 겨우 우리 한개 보도록 하자.

### 신간회 강령

(1927년 2월 15일 창립)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극단 타이헌

“장애인의 장애 자체를 미(美)로 전화시킨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자신이 중증신체장애자인 김만리(재일동포2세)가 창작·연출하면서 27년에 걸쳐 예술성 높은 무대작품을 창작해온 무대 예술집단.

종래 ‘추하다’고 간주되어 온 신체장애인의 육체나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움을 표현력으로 승화시켰으며, 새로운 ‘美’를 낳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의식 자체를 밑으로 부터 변혁할 신체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술에 대한 해석 자체를 넓히고 신체장애인 밖에 할 수 없는 표현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대표작

- 1983년 <꽃은 향기로워도(色は臭へど)> 창단공연
- 1989년 <은하반란 '89> '대사없는 추상적 신체표현'이라는 현재의 스타일 확립
- 1992년 <나이로비 카카메가 키즘> 케냐 공연
- 1996년 <우주와 놀다> 세계적 부토가 오노 카즈오와의 공동작업
- 1997년 <DEPARTED SOUL> 제11회 베르나 탄츠 페스티벌 초청공연
- 1998년 <우리 어머니>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 이후 독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공연
- 1999년 <코쥬이치만넨사이(壺中一萬年祭)> 일반 신체장애자들이 엑스트라로 참가
- 2001년 <마하라바전설> 베를린공연. 2005년 독일연극제 Theater der Welt 초청
- 2002년 <한여름밤의 꿈>
- 2004년 <귀향-여기가 이향이었다> 서울 아롱구지소극장
- 2007년 <Hutan Kenangan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연.
- 2008년 <모습을 드러낸 자> 체 게바라의 생애를 다룬 작품.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시리즈 첫 작품





|        |  |   |
|--------|--|---|
| 작·연출   |  | 김만리   |
| 무대감독   |  | 츠카모토 오사무  |
| 조명     |  | 미우라 아사코   |
| 음향     |  | 히마진   |
| 무대미술   |  | 요시다 아키라   |
| 의상     |  | 메라미 키코  |
| 쿠로고    |  | 나나이 유우<br>코야마 준<br>덴케이 타마미<br>오카 요우코<br>박동녕<br>성현목<br>서새름<br>신호연<br>정미지<br>장덕균<br>이재우<br>전민혁<br>서진장<br>연서 |
| 팸플릿디자인 |  | 이미루   |
| 사진     |  | 후쿠나가 코우지(Studio époque)   |
| 제작     |  | 김리마, 키다 유우스케  |
| 기획·제작  |  | 극단 타이헨  |

<http://www.ne.jp/asahi/imaju/taihen>

# 態 変

Performance troupe TAIHEN  
1-15-15 Nishiawaji, Higashiyodogawa-ku, Osaka, 533-0031, JAPAN  
tel/fax + 81-6-6320-0344  
taihen.japan@gmail.ne.jp  
<http://www.ne.jp/asahi/imaju/taihen>